

고려

17강 - 경희대 인문

이해분석력 {개념 → 브릿지 → 기출 → De.코드} → **사고력** → **표현력**

대성학원 부산 **이태훈** 쌤 | **논술 단과**

도입 FAQ ① - 표현력은 어떻게 늘려요?

1. 인문논술 = 간결체

인문논술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술적 글쓰기와 맞닿는다. **명확성, 객관성, 간결성**이 핵심이다.

2. 간결하게 쓰는 법

문장 길이 **한 문장은 30~75자 내외로 적자.**

일문일사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사실만 쓰자.**

예) 언어는 사고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언어를 발전시키기도 하므로, 둘은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언어는 사고를 규정한다. 동시에 사고는 언어의 발전을 촉진한다. 언어와 사고는 상호작용한다.

수식어 최소화 **주관적인 관형어와 부사어를 최소화하자.**

예) 정의로운 사회란 **매우** 다양한 개인들의 욕망과 복잡하고도 불균등한 이해관계를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하게 조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 정의로운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도로 조정하는 사회다. 핵심은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균형을 함께 추구하는 데 있다.

연결어 최소화 **연결어를 최소화하자.**

예)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단절된다. 그러므로 기술의 발전은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지만 인간관계의 단절을 낳기도 한다. 기술 발전은 이처럼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가져온다.

30/70 법칙 **100자로 쓸 내용을 30자짜리 핵심 문장과 70자짜리 보충 문장으로 나누기.**

예) ①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독창적인 원근법과 회화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세계관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관, 즉 인간의 몸은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었다면, 「몽유도원도」는 자연을 화가의 개인적 속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살아 있는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중용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192자)

→ ① 「모나리자」와 「몽유도원도」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은 상이하다. ② 「모나리자」는 독창적 원근법과 회화 기법을 통해 인간의 몸은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 세계관을 드러낸다. ③ 반면 「몽유도원도」는 자연을 화가의 개인적 속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중용적 세계관을 표현한다.

완급조절 **핵심어가 어려워도 설명은 쉽게.**

예) **세계화**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와 초국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해 정치·경제·문화적 영역의 통합성을 증대시키는 현상이다.

→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가 약해지면서 사람·물건·정보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현상이다.

유형 **경희대 인문 - 대논점**이 지문과 글을 지배한다.

1. 구성

- ① 120분 / 2문항 / 2,000자
- ② 문제 1. [다]로 [가], [나] 평가 [800~900자]
- ③ 문제 2. 1) [라, 마, 바, 사] 2대 2 **입장 분류** 2)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 **비판** [1,000~1,100자]

2. 특징

- ① 분량 긴 편 → 동어 반복 X 논리 다각화, 입체화 O.
- ② 타 학교보다 **논리의 여유 폭**이 넓고 해석의 **자율성**이 높다. → **확대해석**이 좋은 해석이 될 수 있다.
- ③ 제시문 독해값과 평가 논리가 **대논점**에 의해 영향받는 정도가 강하다.
- ④ 예시 답안이 충실함 → 예시 답안 포맷에 맞추어 연습

3. 평가 문단 전개.[문항 1, 2 공통]

- ① 평가값 제시
- ② 피평가 제시문 요약 → T일 경우 긍정적 요약, F일 경우 경우 부정적 요약.(입체적 요약)
- ③ **뉘앙스 전개** → 제시문과의 T/F point 부각 → T일 경우 긍정적 서술, F일 경우 경우 부정적 서술.
- ④ 핵심 평가 문장 (A는 B를 →라는 점에서 T/F한다)

예시

반면, [나]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자존감을 찾는 [다]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다. [나]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천박한 위계질서에 매몰되어 있다. 개인은 타인에게 쉽게 모멸감을 안겨주거나,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공격성을 극대화해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만들어 낸다. 개인을 깎아내리고 피로감만 안겨주는 [나]의 인간관계는 [다]의 입장에서 볼 때 관계와 연대의 순기능이 없는 억압적인 상황이다.

▽

① 반면, [나]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자존감을 찾는 [다]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다.

→ [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값만 간결하게 제시했다. 평가값은 F(부정적)이다.

② [나]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천박한 위계질서에 매몰되어 있다.

→ [나]를 간결하게 요약했다. [나]를 비판할 예정이기 때문에 '천박한 위계질서의 매몰'로 [나]를 **부정적으로 요약**했다.

③ 개인은 타인에게 쉽게 모멸감을 안겨주거나,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공격성을 극대화해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만들어 낸다.

→ [나]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부정적 뉘앙스**를 입혀서 추가로 **부연 설명**했다. 핵심 비판 문장을 위한 가교이다.

④ 개인을 깎아내리고 피로감만 안겨주는 [나]의 인간관계는 [다]의 입장에서 볼 때 관계와 연대의 순기능이 없는 억압적인 상황이다.

→ **핵심 평가 문장**. [A는 B를 →라는 점에서 T/F한다.] 구조이다. [다]는(A) 피로감만 안겨주는 [나]의 인간관계(B)를 [연대의 순기능이 없는 억압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판(F)할 것이다.

기출 경희대 2022 모의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 ~ 900자 이하: 배점 50점]

- 1) 분량 배분
[다] 요약 300
[가] 평가 300
[나] 평가 300
- 2) 경희대 인문에서 추가로 중요한 것은 **대논점 잡기**이다. 대논점에 맞춰서 다시 [가, 나, 다]를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 3) 제시문 관점 평가가 아닌 상황 평가임을 인지하자.

[다] 근대윤리학은 도덕적 이성의 핵심적 특징은 불편부당성이라고 설정한다. 그리고 모든 합리적 행위 주체에게 똑같은 보편적인 관점을 각 행위 주체가 채택할 때에만 이기주의를 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불편부당성의 이상은 이렇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관점’을 추구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④

도덕 이론가나 합리적 행위 주체는 어떻게 도덕적 관점에 도달할까? 도덕적 이성의 성찰 대상인 상황의 **개별 특수성을 남김없이 사상(捨象)** ⑤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불편부당하게 추론하는 자는 상황의 개별 특수성에 거리를 두고 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즉, 이성은 도덕적 추론이 일어나는 상황의 구성 요소인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들과 역사들을 사상시켜 버린다. 불편부당한 추론을 수행하는 자는 또한 그 자신이나 타인이 상황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감정, 욕구, 이해관계, 가치지향 및 다짐을 사상시켜 버린다. 끝으로, 불편부당한 추론을 수행하는 자는 보편적인 추론을 수행한다.

불편부당한 이성의 목표는 **구체적인 행위 상황의 외부에서 판단하는 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것** ⑥이다. 구체적인 주체들이나 주체들 집합의 관점, 속성, 성격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관점’이 그러한 도덕적 관점이다.

[가] 2014년 5월 27일 파키스탄의 제2 도시인 편잡주의 라호르시 고등법원 앞에서 파르자나 파르빈(25)이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 돌에 맞아 살해당했다. 가족의 허락 없이 무함마드 이크발(45)과 결혼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파르빈은 임신 3개월인 상태였다. 파르빈은 그의 가족들이 이크발을 납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으로 결혼했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파르빈에게 벽돌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둘렀다. 딸을 숨지게 한 아버지는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딸이 허락 없이 결혼을 해 가족 모두를 모욕했기에 살해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은 불법이지만 파키스탄 인권단체 아우랏재단에 따르면 매년 이렇게 숨진 여성이 약 1,000명이나 된다. 대부분의 명예살인이 정부의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시골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법원 앞에서 대낮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파키스탄 내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다.// ⑥

① 기준 제시문부터 읽는 것은 기본. 가·나·다 순에 읽어야 할 것.

② 핵심 개념은 불편부당성이다. 불편부당성은 모든 행위 주체에게 보편적, 객관적 관점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③ 사상은 어려운 어휘이지만 충분히 문맥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불편부당성이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개별 특수성을 사상한다는 것은 대중 없애달라는 느낌과 비슷하다.

※ 사상의 정의는 ‘현상을 제거하다(버릴 사)’이다. 유의할 필요가 있는 현상의 특징이외의 다른 성질을 버리는 일.

④ 결국 [다]의 불편부당성은 구체적 행위와 무관한 보편적이고 순수한 도덕을 추구한다. **절대, 시공간초월, 보편**을 핵심 키워드로 도출 가능하다.

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폐해의 대표적 예시이다. 통합 사회, 사회문화를 공부했다면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인문논술은 배경지식만으로 독해할 수 없다. [다], 그리고 **대논점**을 고려하여 [가]를 읽어내야 한다. Brain-storm에서 구체화하자.

나1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잘도 갖다 대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을 여자 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를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차라리 전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아선 안 될 험한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는 행동을 하리라곤 생각할 수 없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샅바느질을 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서숙이라도 꾸어다가 조식을 봉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를 아는 겁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깍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바로 **인륜**이라는 거지요?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 않겠습니다. 분명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행복하게 살며 번성하라고 내셨지, 어찌 누구는 밤낮 서럽게 기다리고 굶주려다 자식도 없이 죽어 버리라고 하셨겠는가 말이예요?”

Brain-storm

① 대논점 잡기, [가, 나, 다] 독해값 잡기

세 제시문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 1) 세 제시문 모두 도덕을 논함.
- 2) [다] 도덕의 보편성
 - [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폐해
 - [나] 유교적 가치관이 여성 차별의 원인이 됨
- 3) 세 제시문을 꿰뚫을 도식 있을까?
 - [다] 도덕의 보편성 → 특수성과 대립시킴
 - [가] 문화상대주의 → 사회문화현상의 특수성
 - [나] 유교적 가치 → 그 당시 보편 윤리로 여겨짐. 그러나 누가봐도 보편적 가치 훼손
- 4) 결론 :
 - 대논점** : 도덕 논쟁 : 보편주의 vs 특수주의
 - [다] 보편주의 [가] 특수주의의 한계 [나] 불안정한 보편윤리

② [가] 평가값 잡기

Easy : [F] 시공간적 특수성을 사상하지 않은 그 지역만의 풍습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
→ 다만 **대논점**을 입혀서 [가]의 사례를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논쟁으로 끌고 와야 한다.

③ [나] 평가값 잡기

Hard : [F] 유교적 가치는 진정한 보편 윤리가 아니다. 왜? 보편 윤리를 명목으로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남녀평등)를 훼손하니까. → 유교적 가치는 시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사상이 덜 되었기에 보편 윤리로 여겨질 수 없다.

① 평가하기 어렵다. 나는 차분하게 [나]를 최대한 평면적으로 읽고 Brain-storm에서 평가 논리를 잡아보려한다.

② 유교적 가치관의 키워드인 **신의**, **인륜**, **예의**, **염치**를 밑줄쳤다. 우선 '유교적 가치'로 패러프레이징 해두려 한다.

③ 유교적 가치가 여성 차별의 원인이 되었다. 로 해석할 수 있겠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에 따라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집단별로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고, 오른쪽 그림은 금전적 보상과 '보상 후'의 내재적 동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다. 두 개의 그래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제시문 [가], [나], [다]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관점에서 여러 상황을 다루고 있다**① 먼저 [다]는 근대 윤리학이 전제하는 합리적 행위 주체가 어떻게 이기주의를 벗어나 객관성을 갖추는지 언급한다. 도덕적 이상의 핵심은 불편부당성이며, 도덕적 주체는 상황의 개별 특수성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는 이러한 판단이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나 가치 지향 등을 배제한 '초월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한편 [가]는 종교와 관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슬람 사회의 명예 살인과 투석 처벌이 개인, 특히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임을 지적한다. 이는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특수주의**②적인 관점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보편주의 입장을 옹호한다. 따라서 [다]의 시각에서 [가]의 상황은 문화적·종교적 특수성을 용인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가족'과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부정하게 하는 부정적 사례로 보일 것이다. 문화에 대한 특수주의 관점을 긍정하면 잘못된 관습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륜'과 '예의'라는 유교적 가치가 보편적으로 여겨졌던 전근대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가 사대부집 여성에게 고된 가사 노동과 생계 유지라는 이중적 고통으로 작용했음을 드러낸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숭상되던 가치가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삶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의 시각에서 [나]의 상황은 특정 사회나 시대에 보편적이던 도덕도 가치 지향을 벗어난 초월적 상황에서 외부적 입장으로 판단하면 보편적 도덕성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850자)

※ 예시 답안 분석은 '내용적 측면'에 집중한다. 형식적 측면은 P.3을 참고하여 스스로 분석하라.

① 최근 경향성에서는 필요 없는 문장이긴 한데, **대논점**을 명확히 잡는 문장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결국 이 [가, 나, 다]의 독해값, 평가논리 모두 보편주의 vs 특수주의라는 대논점 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② ★ [가]는 독립적으로 보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보편주의 vs 특수주의의 관점에서는 '특수주의적 사고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되어야 한다.

③ 이태훈T는 설명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륜, 예의]와 같은 유교적 가치는 그 당시 보편윤리로 여겨졌으나 이들은 시공간적 특수성을 사상하지 않은 진정한 보편윤리가 아니며 조선에서 통용되던 편협한 인습에 불과하다.]으로 쓰고 싶다.

작성 고난도 / 경희대 2022

1) [라], [마], [바], [사]에서 입장이 유사한 두 집단으로 짝지어 그 중 한 입장을 요약하고(350자) 2) 이에 기초하여 다른 입장의 두 제시문을 각각 비판하시오(각 제시문 비판 350자). [총 1,050자 내외]

[라] 내부 고발의 영어 표현 'whistle blowing'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불법 행위를 경계하고 시민의 위험을 경고하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내부 고발은 조직이나 집단의 전·현직 구성원이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발생한 불법, 부정부패, 비리,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나 감독·수사 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다. 내부 고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동료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는 데다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한 선택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감사원 감사 비리, 군 부정 선거, 보안사 민간인 사찰 등 정권과 관련된 내부 고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인천 신공항 부실 시공, 적십자사 혈액 관리 부실, 자동차 리콜 지연, 불량 밀가루 유통, 사학재단 비리 등 안전, 건강,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내부 고발이 확대되었다. 이런 일들은 소속 집단 내부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이뤄진 내부 고발 102건을 추적한 결과 진상 규명에 기여하거나 조직 또는 제도 변화를 이끈 경우는 62건(전체의 60.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부재자 영외투표 개정과 일명 '도가니법' 제정처럼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성공시킨 내부 고발은 청렴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다.

[마] 무릇 신민(臣民)이 된 자가 충성과 의리를 숭상하면 나라가 흥하고 백성이 편안해진다. 반면 불충하고 불의하면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은 멸망한다. 우리 2,000만 동포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때를 만나 어느 한 사람 결심하지도 않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단지 황상(皇上)이 지극히 근심하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한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근래의 역사를 한 번 살펴보면, 나라가 무너져서 멸망한 이집트·베트남·폴란드 등의 민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자기 몸과 자기 집만 앞을 뿐 군주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아 결국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 지금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충성과 의리를 분발할 때가 아닌가? 지금 나라의 빚이 1,3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관계된 일이다. 이를 갚으면 나라를 보존하게 되고 못 갚으면 나라를 잃고 만다. 형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나 현재 국고로는 보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삼천리 강토는 장차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도 이 국채 보상에 대한 의무에 대해 모른 채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다. 모두가 보상에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2,000만의 백성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돈을 각 사람마다 20천씩 낸다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만약 부족하다면 1원, 10원, 100원, 1000원 등 따로 기부를 받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니만큼 잠시 결심만 하면 된다. 부족한 우리들이 이렇게 발기하여 경계하는 글을 계속 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대한의 군자들이 모두 보고 말과 글로 서로 경고하여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로는 황상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강토를 지킬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바] 지적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로 보호받는 발명품 등 창작물을 의미한다. 지적재산 보호는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원작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혁신 기업에 단기적인 생산 독점권을 부여해 기업의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투자를 장려한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백신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제조사들이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해제하여, 제품생산 기술 등 노하우를 일종의 공공재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해야 팬데믹의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신 특허권 면제를 반대하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코로나19 백신을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생산하는 동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반대론자들은 특허 면제로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쿠에니 국제제약협회연맹 사무총장은 BBC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특허 면제가 아니라) 공급체인에서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지금 부유한 국가들이 초기 백신 물량을 가난한 국가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실망스러운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 정부는 6일 성명에서 백신 특허권 면제 제안에 대해 반대하며, “백신 생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건 생산능력 및 높은 품질기준 때문이지 특허 때문이 아니”라며 제약사들은 이미 협력사와 손잡고 백신 제조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포기가 아니라 제약사들이 특허료를 받고 기술 이전을 통해 라이선스 생산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 서양 근대의 산물인 자유주의는 삶을 옥죄던 공동체의 가시적 비가시적 강제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켰고, 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장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자 자유주의의 기초인 개인의 권리가 비사회적 개인주의를 낳아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공동체의 덕성을 중시한 공동체주의 사상이 등장했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적 유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상호적 돌봄의 의무, 공동체의 목적에 기여하는 참여 등을 공공선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존재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선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참여와 공적 의무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 권리의 선형적 근원적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자신처럼 자유와 권리를 지닌 타인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존재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라도 공공선과 공동체적 발전을 추구해야만 한다.

1) [라], [마], [바], [사]에서 입장이 유사한 두 집단으로 짝지어 그 중 한 입장을 요약하고(350자) 2) 이에 기초하여 다른 입장을 두 제시문을 각각 비판하시오(각 제시문 비판 350자). [총 1,050자 내외]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선택하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한 경우

제시문 [라], [마], [바], [사]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옹호하는 [라]와 [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입장에 있는 [마]와 [사]로 구분할 수 있다**①.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이다. [라]의 **내부 고발 사례는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②에 따른 공동체의 불법이나 부정부패 고발이 청렴 사회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바]는 백신 개발에 성공한 개별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옹호한다. **특허권 유지를 통해 제약회사에 이윤을 보상할**③으로써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양의 백신을 공급하여 보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입장에서 제시문 [마]와 [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마]는 국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보상 모금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는 부정부패나 예산 낭비 등을 감시할 내부 고발이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국제 보상이 황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모금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④.

[사]의 경우 지나친 개인의 권리 추구가 이기적 개인주의를 낳아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비민주적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하는 것이 좁은 이익 공동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보다 넓은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선택하여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한 경우

제시문 [라], [마], [바], [사]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옹호하는 [라]와 [바],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입장에 있는 [마]와 [사]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는 지나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은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되어야**⑤ 하며, **개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공공선의 추구가 우선**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금전적 손실을 보더라도 국가 채무의 보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입장에서 제시문 [라]와 [바]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라]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내부고발이 더 넓은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조직이나 집단 내 신뢰가 무너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⑦. 예산 낭비로 취급되는 것에는 공동체의 안전 유지와 같은 중요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해 조직 내 소수에게만 공유되고 대외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내부고발로 이것이 공개되면 해당 조직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이윤 추구 동기를 제공해야 제약회사가 더 나은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허권을 면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제약회사가 더 효과적인 백신 개발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인류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보건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다.

※ 예시 답안 분석은 '내용적 측면'에 집중한다. 형식적 측면은 P.3을 참고하여 스스로 분석하라.

① 이 문제의 **대논점**은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이다. 이제 [라, 마, 바, 사]의 독해값, [라, 바] ↔ [마, 사]의 상호평가 모두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의 논쟁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유기적 독해)

② 결국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③ 자유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한다. 공동체 이득을 명목으로 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싫어하니까.

④ 자유주의 입장에서 비판을 한다기보다 현상 자체에 대한 면지를 거는 비판에 가깝다. 이태훈이라면 '국가의 존속을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 침해는 당연시 여기는 사고방식은 전체주의적 사고이며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것과 다를 없다.'라고 비판할 것 같다.

⑤ 전형적인 공동체주의자의 논리이다.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인정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공동체 내의 책임과 덕성을 약화시키며 공동체의 존립에 위협을 준다는 것이다.

⑥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논리이다. 공동체가 있어야 너희 개인들도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공동체가 붕괴된다면 자유와 권리가 아예 존재조차할 수 없으니까.

⑦ 내부 고발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라]를 비판하는 논리라기 보다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극단적 자유주의자'를 비판하는 논리에 가깝다. 경희대 인문은 평가논리의 자율성이 높으니, 이정도 **확대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작성 중난도 / 중앙대 2016

제시문 [가]의 논지를 활용해 제시문 [나]에 나타난 ‘침묵으로 시작하는 인디언들의 대화 방식’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서술하고, 이러한 대화 방식이 제시문 [다]의 ‘프레이밍 효과’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550~570자]

[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어느 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견해이다.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악보를 보고 그 노래를 흥얼거리려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처음 보는 악보일 경우, 우리는 노랫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랄라랄라’ 한다든지 ‘으응으응’ 한다든지 하면서 노랫가락을 따라 흥얼거리린다. 이 흥얼거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는 ‘도미솔도 도솔미도’ 하면서 음계 이름에 따라 또 노랫가락을 연습한다. 그런 다음에야 노랫말에 따라 노래를 부른다. 말하자면 음악이 말과 일치되는 것은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를 때에 가사야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작곡가가 노래를 짓는 작업을 상상해 보자. 그가 머릿속에 떠올린 악상은 결코 말과는 관계가 없는 멜로디일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조각가의 작업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어떤 조각가가 이순신 장군의 흉상을 조각한다고 가정하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었을 법한 모습을 상상하며 조각가는 눈과 코와 입을 매만진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일일이 “아, 여기를 조금 깎아내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좀 도톰해야 되겠는데.” 같은 말로 표현하면서 그런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말로 정리할 만큼 손놀림에 여유를 둘 것인가? 아마도 조각가의 생각이 바로 손끝에 있다가 그 생각이 번개처럼 손놀림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는 작가의 생각이 말로 바뀔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전혀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 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하였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하였던 나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였다. 티피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처음에 나는 아마도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축제에 잘난 체하는 이방인이 침입한 것을 부정 타는 일로 여길 법도 하였다. 아니면 나와 동행한 백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꿈'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았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다]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뉴스를 접하며 다양한 프레임에 노출된다. 뉴스 프레임은 어떤 이슈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 시각 틀로서 다양한 시각들 사이에서 언론에 의해 선택되고 강조된다. 프레임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뉴스 프레임이 어떻게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뉴스 프레임을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연구는 '개념 접근성'에 기반한 설명과 '개념 적용성'에 기반한 설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념 적용성'에 기반한 설명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 특정 개념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미 수용자에게 주어진 자극의 특성에 잘 호응하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프라이스는 지식 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들어 프레임링 효과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프레임링 효과는 '개념 적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뉴스 수용자가 자신의 가치, 신념, 이념에 따라 주어진 뉴스 텍스트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념들을 동원해서 뉴스 텍스트를 이해하고, 계속되는 인지 과정에서 그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지식 체계 내에서 어떤 개념은 주어진 뉴스 텍스트와 잘 호응하는데, 어떤 개념은 덜 호응한다. 그래서 프라이스는 프레임링 효과란 뉴스 텍스트의 속성과 상응해서 상호 작용하는 수용자의 사전 지식이 메시지의 인지, 해석, 평가, 판단 등과 같은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해설 중앙대 2016

제시문 [가]의 논지를 활용해 제시문 [나]에 나타난 ‘침묵으로 시작하는 인디언들의 대화 방식’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서술하고^①, 이러한 대화 방식이 제시문 [다]의 ‘프레이밍 효과’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② [550~570자]

[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어느 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견해이다.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매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악보를 보고 그 노래를 흥얼거려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처음 보는 악보일 경우, 우리는 노랫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랄라랄라’ 한다든지 ‘으응으응’ 한다든지 하면서 노랫가락을 따라 흥얼거린다. 이 흥얼거림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는 ‘도미솔도 도솔미도’ 하면서 음계 이름에 따라 또 노랫가락을 연습한다. 그런 다음에야 노랫말에 따라 노래를 부른다. 말하자면 음악이 말과 일치되는 것은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를 때에 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작곡가가 노래를 짓는 작업을 상상해 보자. 그가 머릿속에 떠올린 악상은 결코 말과는 관계가 없는 멜로디일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조각가의 작업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어떤 조각가가 이순신 장군의 흉상을 조각한다고 가정하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었을 법한 모습을 상상하며 조각가는 눈과 코와 입을 매만진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일일이 “아, 여기를 조금 깎아내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좀 도톰해야 되겠는데.” 같은 말로 표현하면서 그런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말로 정리할 만큼 손놀림에 여유를 둘 것인가? 아마도 조각가의 생각이 바로 손끝에 있다가 그 생각이 번개처럼 손놀림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는 작가의 생각이 말로 바뀔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전혀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③

논제 설계

① [가]로 [나] 설명 280자

② ①의 의의로 [다] 설명, 28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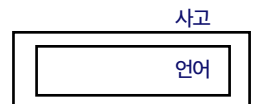
1) [중앙대 쓸 학생] : 중앙대 2번은 소논제를 보통 2개 주는데, 기계적으로 소논제 당 280자씩 글자 수 부여해서 원고 작성하자.

2) [원고 작성에 실패한 학생] : 아마 소논제 ①의 분량을 280자 내외로 채우지 않고 소논제 ②로 넘어가서 분량이 부족했을 것이다. 넘쳤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구상의 기본은 '분량 설계'이다. 구성요소, 논리, 문단별로 쓰기로 구상한 분량을 채우지 않고 다음 요소로 넘어가면 분량이 부족해질 확률이 높다.

③ [가]의 요지는 미관식이며 선명하다. 언어는 사고를 다 담지 못한다 or 사고의 범위가 더 넓다.이다.

1) 논리를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은 벤다이어그램을 그렸으면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2) 표현의 측면에서 언어의 범주가 사고의 범주보다 좁다. 언어는 사고의 부분집합에 불과. 사고의 외연이 언어의 외연보다 넓다. 와 같은 표현을 만들면 가점

3) 필연적으로 언어의 어집합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도출했다면 [나]를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나]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 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하였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하였던 나는 뜻밖의 일을 경험하였다. 티피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버렸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처음에 나는 아마도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축제에 잘난 체하는 이방인이 침입한 것을 부정 타는 일로 여길 법도 하였다. 아니면 나와 동행한 백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①.

라코타 족 인디언인 '서 있는 꿈'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 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 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았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다] 사람들은 매일 수많은 뉴스를 접하며 다양한 프레임에 노출된다. 뉴스 프레임은 어떤 이슈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심 시각 틀로서 다양한 시각들 사이에서 언론에 의해 선택되고 강조된다. **프레이밍 효과**②에 대한 연구는 뉴스 프레임이 어떻게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뉴스 프레임을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연구는 '개념 접근성'에 기반한 설명과 '개념 적용성'에 기반한 설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념 적용성'에 기반한 설명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 특정 개념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이미 수용자에게 주어진 자극의 특성에 잘 호응하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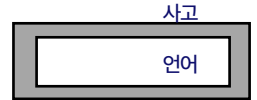
프라이스는 지식 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들어 프레임링 효과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는 프레임링 효과는 '개념 적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뉴스 수용자가 자신의 가치, 신념, 이념에 따라 주어진 **뉴스 텍스트**④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념들을 동원해서 뉴스 텍스트를 이해하고, 계속되는 인지 과정에서도 그 개념을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지식 체계 내에서 어떤 개념은 주어진 뉴스 텍스트와 잘 호응하는데, 어떤 개념은 덜 호응한다**⑤. 그래서 프라이스는 프레임링 효과란 뉴스 텍스트의 속성과 상응해서 상호 작용하는 수용자의 사전 지식이 메시지의 인지, 해석, 평가, 판단 등과 같은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 Brain-storm : 인디언 침묵이 프레임링 효과가 초래할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유는?

프레이밍의 원인 : 언어의 한계로 인식의 왜곡, 선입견, 편견.

해결 방안 : 침묵(비언어)로 진실(언어의 여집합)을 온전하게 전달!

① 평면적으로는 '침묵을 통한 존재의 이해, 예의, 진실, 진정성의 전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가]의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하자.



[가]에 의하면 언어의 여집합(언어가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고의 부분)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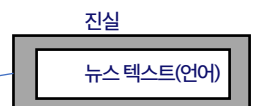
▶ 인디언 침묵은 언어의 여집합, 언어가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마음(사고), 언어의 한계 극복,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형광펜** 친 부분이이 소문제 ①의 정답이다. 이 논리 없으면 C+이하.

② '프레임' 자체가 '틀'의 영어이다. 이미 소문제 ①에서 언어가 사고를 왜곡하는 틀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③ 이를 '언어의 한계, 언어적 인식'으로 인한 편견, 왜곡, 선입견으로 해석해야 한다. 아니 해야 A를 맞는다.

④ 뉴스 텍스트를 '언어로 패러프레이징'해야 한다. 왜? 이 논제가 언어의 한계, 언어로 인한 진실의 왜곡을 다루고 있으니까. 인문논술은 제시문 간의 관계 속에서 논리가 정해진다. 유기성!

⑤ ④과 마찬가지로 진실에 대한 왜곡, 인식의 한계, 편견, 선입견으로 패러프레이징 가능



제시문 [가]의 논지를 활용해 제시문 [나]에 나타난 ‘침묵으로 시작하는 인디언들의 대화 방식’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서술하고, 이러한 대화 방식이 제시문 [다]의 ‘프레이밍 효과’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550~570자]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의 존재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자 한다. **사고의 외연이 언어의 외연보다 넓어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사고의 영역이 존재한다**^④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인디언들의 대화법은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전달**^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⑥

제시문 [다]에 따르면 언어가 갖는 ‘프레이밍효과’란 우리가 대화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수용자의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켜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대화를 시작할 때 직업이나 관심사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가 전달될 경우 그로 인해 특정한 틀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언어적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사전 지식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④. 침묵의 시간을 먼저 갖는 인디언들의 대화법은 **비언어적 인식을 선행**^⑤시킴으로써 언어의 프레이밍효과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침묵의 시간을 갖는 대화법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준다. (557자)

① ‘사고의 외연이 언어의 외연보다 넓다.’로 [가]를 요약/패러프레이징했다. 참 예시답안스럽다...

② 정답 논리를 편안하고 간결하게 전달했다. 할 말 다 하면? 굳이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

③ Q : 쌤 아까 논제 분석에서 소논제 280자 내외로 구성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정작 예시 답안은 200자 내외로 짧은데요?
→ A : 예시 답안은 출제자가 여러 번 쓰고 지울 수 있으니 소논제로 분량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장에서 촉박하게 50분 내외로 써야 하는 ‘여러분’은 분량을 유연하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④ 지문 분석④에서 언급한 중요 가점 Point : [다]의 프레이밍효과를 ‘언어적 정보’에 의한 왜곡, 편견’으로 설명하여 명확하게 ‘언어’의 문제임을 밝혀야 한다. 왜? 소논제 ①이 언어의 한계를 논했으니깐!

⑤ 인디언 침묵을 ‘비언어적 인식의 선행’으로 패러프레이징했다. 참 예시답안스럽지만 여러분의 경쟁자 중 누군가는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과제 (약술형) 중앙대 2025

제시문 (차)를 토대로 제시문 (자)의 아카키가 경찰서장 대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카)를 바탕으로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를 서술하시오. [330-350자]

(자) [앞부분의 줄거리] 주인공 아카키는 하급 관리로 평생 서류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의 낡은 외투가 해져서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되었다. 페테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수품이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돈을 아껴 겨우 새 외투를 마련한다. 하지만 새 외투를 입은 첫날, 불행히도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다음 날 아카키는 창백해진 모습으로 더욱 초라해 보이는 헌 외투를 입고 출근했다. 누군가가 동정심에 이끌려 적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충고라도 한마디 하겠다며, 경찰서장에게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서장이 상부에 실적을 올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외투는 찾아내겠지만 만약 필요한 법적 서류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투는 찾지도 못하고 경찰서에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서 급히 손을 쓰도록 하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권했다. 할 수 없이 아카키는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 고위층 인사가 어떤 직책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체계는 엄격함이었다. “엄격, 엄격, 또 엄격.”

아랫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역시 엄격함이 드러나 거의 세 마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중략) 이때 아카키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 그대! 기다려야했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여기서 이 인사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관직을 떠나 오랫동안 시골에 묻혀 있던 친구에게 자신을 만나러 온 관리를 얼마나 오래 현관에 세워 둘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답답을 실컷 하고 그는 문가에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대, 거기 관리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카키는 미리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최선을 다해 언변이 닿는 대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섞어 가며 완전히 새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총감이나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 주도록 청원을 좀 해 주십사 찾아왔다고 말했다.

“귀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상관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도대체 알기나 해, 알기나 하냐 말일세? 대답해 봐.”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카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인성을 높였다. 아카키는 낮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 나갔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하여 결눈질로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만족했다.

(차) 산업화 이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 조직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체계인 관료제가 확산하였다. 관료제는 행정 기관, 회사 등을 비롯한 오늘날 사회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관료제 조직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 개인적인 감정 개입을 방지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관료제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하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카) 유교에서는 통치자가 백성을 감화하는 정치, 즉 덕치(德治)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이상 사회를 지향한다. 이때 통치자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덕을 함양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자의 덕치 사상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치는 법령과 형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도자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힘으로 위협하지 말고 덕과 예로 이끌면 백성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부합하는 덕을 갖추고 자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제시문 (차)를 토대로 제시문 (자)의 아카키가 경찰서장 대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카)를 바탕으로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를 서술하시오. [330-350자]

(자)의 아카키는 경찰서장이 외투를 찾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다면 방치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다. (차)에 따르면, 이는 규칙과 절차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외투를 찾아주는 데는 **소홀한 관료제의 목적 전치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카키가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행위는 일 처리에 사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카)를 고려할 때, 고위층 인사는 난폭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아카키를 대하는 대신 지도자로서의 덕과 예를 갖춰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화** 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345자]

※실제 예시 답안은 통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예시 답안 글쓰기가 이 부분을 (자)의 핵심 장면으로 삼은 이유는, 결국 (차)에 의거할 때 중요한 장면이 관료제의 목적 전치 현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②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결국 인문논술은 기존 제시문의 워딩으로 대상 제시문 재생산하는 것이다. '목적 전치 현상에 대한 우려로 (자)를 해석해야 한다.'

③ (차)에 의거한 (자)의 문제점

④ (카)를 통한 해결 방안

사고력 주제, 문제의식, 배경지식

보편주의 vs 특수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특수주의(Particularism)는 인간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표적인 관점이다. 보편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는 문화나 시대를 초월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특정 사회의 관습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편적 기준에 어긋난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명예 살인, 여성 할례, 인종 차별과 같은 관행은 오랜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특수주의는 각 사회가 형성해 온 역사, 문화, 종교, 전통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는 그 사회가 처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정 문화의 기준을 다른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가족 제도, 예절, 종교 의식 등은 사회마다 다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외부의 기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인권 침해나 차별을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특수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당한 관습까지 옹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려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보편주의는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가치와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O / X)

특수주의는 모든 사회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 / X)

특수주의는 특정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O / X)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는 정치철학의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다. 개인은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은 표현의 자유, 사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의 가치와 공공선(Common Good)을 중시해야 하며, 지나친 개인주의는 사회 통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일정한 자유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사회적 연대가 약화될 수 있고, 공동체주의는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도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의의 핵심 가치로 본다. (O / X)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한다. (O / X)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개인의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게 본다. (O / X)

형식 vs 실질

형식과 실질은 어떤 제도나 행위, 판단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난 절차와 내용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형식은 규칙, 절차, 법률, 문서 등 외형적으로 갖추어진 요소를 의미하며, 실질은 그 제도나 행위가 실제로 달성하는 목적과 효과를 의미한다. 형식 중심 관점은 절차적 정당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며, 실질 중심 관점은 결과의 타당성과 현실적 효과를 강조한다. 형식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실질은 구체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형식과 실질은 상호 대립하기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용례}

-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
-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존재 자체를 중시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정의로움을 함께 고려한다.
- 교육의 형식적 평등이 보장되더라도 실질적 교육 기회는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제}

형식과 실질의 의미 대립을 이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시오.

이상 vs 현실

이상과 현실은 인간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상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 목표, 원칙 등을 의미하며, 현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상은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 조건을 무시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현실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만, 현실만을 중시하면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는 과정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용례}

- 평등한 사회라는 이상은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격차가 존재한다.
- 환경 보호라는 이상과 경제 성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상만 추구하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고, 현실만 중시하면 변화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과제}

이상과 현실의 의미 대립을 이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시오.

커리 '27 논술 커리큘럼

기본 개념	2월	사실적 글쓰기	요약 유형	요약 유형
			비교 유형 ①	[2자 비교] 경희대
			비교 유형 ②	[3자 비교] 연세대
	3월	추론적 글쓰기	입장 분류 유형 ①	[제시문 요약 방식의 입장 분류] 경희대 사회 한국외대
			입장 분류 유형 ②	[입장 요약 방식의 입장 분류] 성균관대 경희대 인문
			적용 설명 유형 ①	서강대 이화여대
			적용 설명 유형 ②	연세대 서강대
	4월		비판 평가 유형 ①	경희대
			비판 평가 유형 ②	고려대
	5월	실전적 글쓰기	견해 제시 유형 ①	서강대 동국대
			견해 제시 유형 ②	고려대 한양대
			도표 분석 ①	연세대(통계적 분석) 고려대(의미적 분석)
			도표 분석 ②	성균관대(다각도 분석) 경희대(추론 Quiz형)
			진단 모의고사	수시 원서 상담을 위한 진단 모의고사
	Semi 파이널	6월	고려형	고난도 적용. 추론.
7월		성균형	입장 분류. 도표.	성균관대 경희대 사회 한국외대
8월		중앙형	요약. 약술. 키워드.	중앙대 한국외대 동국대 부산대 경북대
1차 파이널	9월	본인 지원 학교 기준으로 3개 Track. [Track 1] 2027 모의논술 해제 [Track 2] 기출 주제 및 학교 답안 구조 디코드 [Track 3] 개인화 첨삭 및 개인별 스케줄링		연세대, 홍익대, 단국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등 수능 이전 논술 실시 대학은 이 시기에 별도 파이널 및 직전 모의고사
	10월			
수능 후 파이널	11월	지원학교 특화 수업 개인화 첨삭		